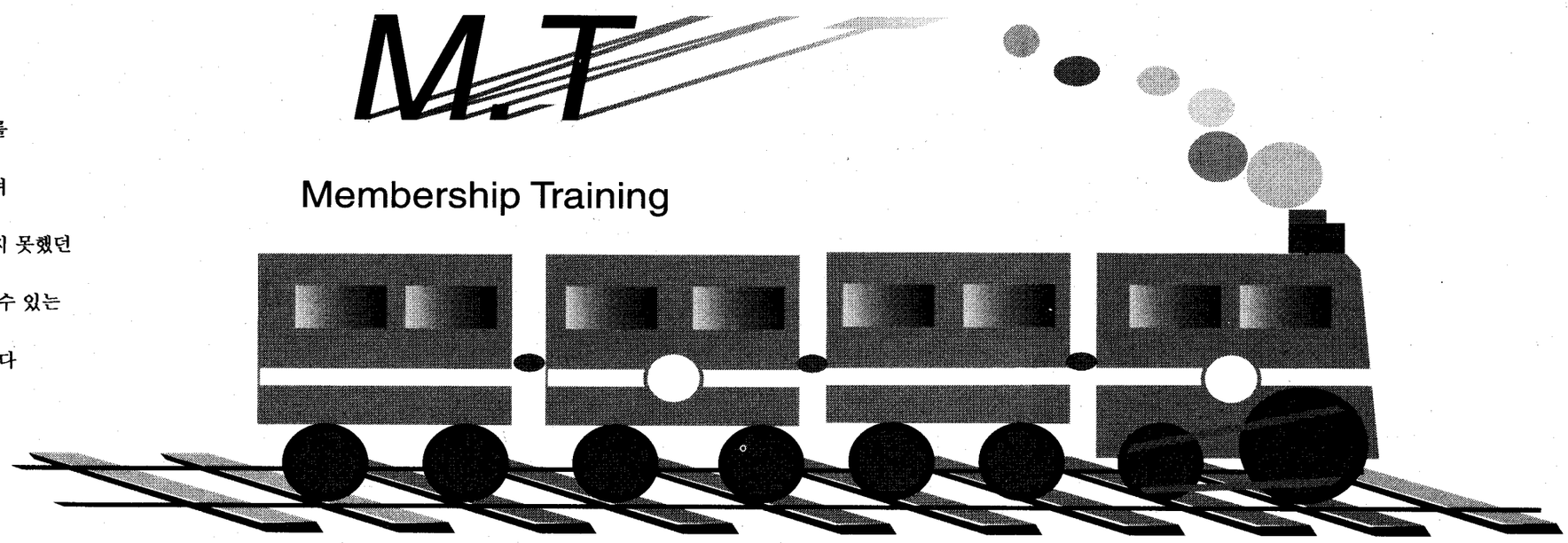


〈일러스트 : 박송원〉

끈끈한 동기애를

다시금 확인하며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설레이는 마음, 즐거운 M.T

'나'를 벗어 던지고 '우리'를 느낀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대학생활을 한지도 벌써 3주가 지난 새내기들. 새로운 강의도 들어보고 선배들로부터 대학분위기도 익혔다.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M.T, 끈끈한 동기애를 다시금 확인하며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한솥밥과 선배들이 준비한 술을 먹으며 또다른 대학분위기를 준비한 것이다. 그러나 '방종'은 금물, 지성인으로서 사리분별을 정확히 해야한다. 이에 우리신문에서는 M.T장소로 적당한 곳, 레크레이션 등을 실어 즐거운 M.T가 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수학과 모여라!", "선배님 기차시간 늦겠어요. 빨리 오세요."

주말이 되면 서울 청량리역에는 M.T를 떠나기 위한 학생들로 북적거린다. 이들은 조금은 답답했던 대학생활에서 벗어나고자 여행을 떠난다. 대부분 학생들은 경춘선 통일호를 타고 '대성리', '강촌', '청평' 등 M.T 장소로 적당한 곳을 살펴본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 양 손에 코펠과 버너를 든 학생. 썬그라스를 끼고, 과 깃발을 든채 폼 잡고 있는 학생 등 모습 또한 다양하다.

직접 만들어 먹는 밥과 반찬, 친구·선배들과 술을 마시며 나누는 진솔한 얘기들, 좁은 공간에서의 불편한 잠자리. 모든 것이 어색하지만 잠시 부모님 곁을 떠나 여행을 왔다는 것에 대해 마냥 즐겁기만 하다. 또한 캄캄한 밤, 강가에 모닥불을 피어 놓고 술잔을 기울이며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거나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나누는 것은 가히 낭만적이다.

이처럼 대학생활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M.T(Membership Training)이다. 잠시 자연을 벗삼아 과친구들과 밤을 지새고 오면 서먹서먹하던 분위기는 금새 반전된다. 대학생활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현실에 안주했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M.T문화이다. 시대가 변하고, 학생들의 생활·가치관이 바뀌면서 많은 것이 다양해졌다. 과거에는 술 한잔과 고래고래 부르는 노래가 M.T에 제격이었다면 요즘은 재미있는 놀이를 빼놓을 수 없다. (이는 레크레이션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자, 새내기들이여! 아직은 부자연스러운 대학생활을 M.T를 통해 바꿔보자.

〈김동혁기자〉

□ 이렇게 놀아봐요

갑갑한 공간을 벗어나 새로운 장소로 떠나는 M.T. 그러나 막상 도착하니 많은 시간이 남는다. 술을 먹자니 너무 이른 시간이고, 할일이 없다. 이럴 때 선·후배간에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을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세종대왕 게임'

주로 국문과 학생들이 M.T에 가서 많이 하는 세종대왕 게임은 국어사랑의 마음을 갖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대화를 할 때 외래어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상스런 욕을 하면 안 된다. 일정한 규칙을 정해 놓고 선배와 후배들간에 대화를 한다면 더욱 흥미로울 것이다.

'주제가 있는 테마토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예를 들어 영화나 음악 등과 관련된 책을 미리 읽고,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주제별로 나눠 토론을 한다면 선후배간 더욱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

'어조목 사세요'

리더가 "어조목 사세요"라고 중얼거리면서 주위를 돌다가 적당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어'하면 물고기 이름을, '조'하면 새이름을, '목'하면 나무 이름을 셋을 셀 때까지 말해야 한다. 이 때 대답을 못하거나 '조'를 했는데 물고기 이름을 말하면 술래가 돼 일정한 벌칙을 받는다.

'누가 많이 외우나' (되돌림 반복 게임)

리더가 지정한 사람부터 자기이름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고 말하면 다음 사람은 앞사람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말한다. '홍길동, 임꺽정'하는 식으로 앞사람의 성명을 계속 되풀이하며 다음 차례로 옮겨간다.

'과녁 맞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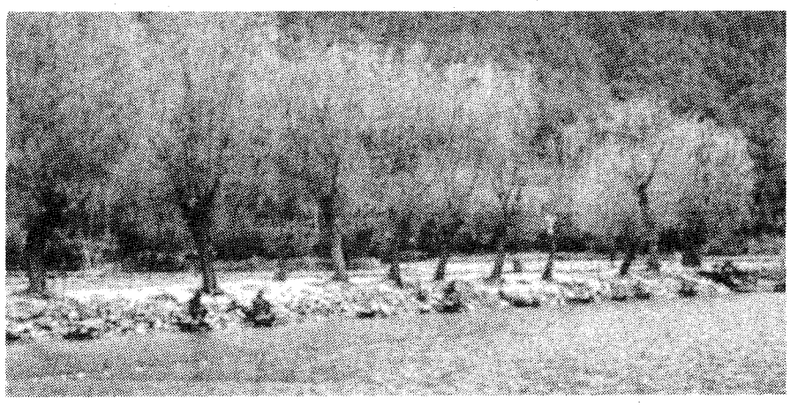
양팀으로 나누어 눈 가리고 과녁에 매직펜으로 점찍기. 이 때 먼저 과녁판을 보고 나서 눈을 가린 다음 앞으로 나가 과녁판을 찍는데 원 중심에 가까울수록 점수를 많이 준다.

연상릴레이

모두 둘어앉아 연상되는 낱말을 차례로 이어가는 놀이로, 같은 말을 반복하면 실격한다.

'요렇게 이렇게 저렇게'

리더가 어떤 동작과 함께 '요렇게'라고 말하면, 참가자들은 '요렇게'라고 말하면서 그 동작을 따라하고, '이렇게'라고 하면 말만 따라하고, '저렇게'라고 하면 아무것도 따라하지 않는다.



□ 이것만은 주의하자

단체 여행은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개인생활이 아닌 단체생활이기 때문에 개개인 각자가 항시 조심을 해야한다. 그 동안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 M.T생활에 있어서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해박한 사전지식. M.T장소에 관한 확실한 정보를 미리 확보해 놓는다.

2. 확실한 위계질서. 과대표나 선배등 통솔자들을 중심으로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

3. 무리한 음주는 금물. 특히 밤에 술 먹고 강가를 배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4.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모닥불을 끌 때 다시 한 번 확인한다.

5. 사소한 지참물이라도 사전에 꼭 신경써서 준비한다.

6. 강가나 산의 밤은 너무 춥다. 두꺼운 옷 등을 미리 준비한다.

7. 단체생활 후 버려진 쓰레기들은 분리수거해 한 곳에 모아둔다.

8. 중요한 소지품들은 잘 챙겨둔다.

□ M.T 이런 곳은 어떨까요

M.T 장소로 인기있는 마석, 대성리, 새티, 청평, 강촌. 이 장소들도 좋지만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보는 것도 흥미롭다.

▲능내

팔당댐을 조금 지나 서울의 상수원을 곁에 두고 있어 주변경관이 일품이다. 주변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묘가 있어 볼거리를 제공한다. 청량리역에서 새벽 6시 50분에 첫차가 떠나며 오후 4시, 7시 등 3회 운행된다. 청량리 경동시장에서 좌석버스 166번이나 8번을 이용해도 좋다.

▲석모도

경기도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에 있는 섬으로 동쪽 삼산면은 갯벌 전체가 논이고, 서쪽은 염전이 주축을 이룬다. 낙가산 중턱에는 신라 선덕여왕 4년에 창건된 보문사가 있고 1백m 높이의 거대한 바위 불상과 3백년생 측백나무가 눈길을 끈다.

신촌에서 외포리행 직행버스를 타고 1시간 30분쯤 가면 외포리 선착장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카페리호로 10분 정도가면 석모도 석포리에 닿는다.△보문장 : 032)932-3800 △낙가산 여관 : 032)932-3137 △자연산장 : 032)932-3814 △보문민박 : 032)932-3136

▲을왕리 해수욕장

인천 월미도에서 영종도행 배를 타고 영종도에서 다시 용유도(을왕리 해수욕장)행 버스를 탄다. 서해 특유의 갯벌과 넓은 바다에서 호연지기를 기를 수도 있다.

△소망 24시 편의점 : 032)-884-7762 △수희민박 : 032)-886-3412 △을왕민박 : 032)-886-3584

▲둔내 자연휴양림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다양한 산책로와 더불어 산악자전거 코스로도 유명하다. 방마다 거실겸 주방, 욕실, 다락 등을 갖춘 별장식 통나무집이 자랑거리이다. 레크레이션 강사가 상주해 있고 원하면 캠프파이어용 장작도 준비해 준다. 주말마다 관광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된다.

△0372)43-8155

〈자료 : 98새내기 정보탱크, 한겨레 신문사〉